제14강 서양의 미학정신

모방 대상: 플롯, 성격, 사상

서양미학의 정신—근대의 절대음악

서양정신의 미학적 표현은 무엇인가. 모방(미메시스)의 원리에 따르는 시와 미술 장르가 아니다. 바로 모방의 수단과 도구로 취급되었던 근대음악이야말로 반영(reflection)의 관점에서 주체의 자기 반성 또는 자기 도취의 예술 형식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바흐의 무반주 연주에서 고전파에 이르기까지 절대음악의 역사는 가사는 지워지고 그 자리에 선율이 지배함으로써 음과 음이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서양정신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시와 음악의 합일 가능성이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서양정신은 미메시스—플라톤은 "미메시스는 에피스테메 episteme의 영역 아닌가?"라고 말했다—를 포기하는 순간, 타자성과의 만남을 포기했으며, 결국 어떤 타자성도 없는 순수한 반성은 몰락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 가령 시의 경우 넓은 의미의 '낭만주의'(프랑스 상징주의 포함)로 나타났다. 실제 낭만주의 이후 예술에서 객관적 룰은 무의미해졌다. 이 점에서 어떻게 미메시스의 객관적 정신과 반영(reflection)의 주체성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이 말은 홀로주체성과 무의미한 객관성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말한다. 나쁜 의미에서 서양정신은 낭만주의적 자기 함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참된 의미의 서로주체성이 왜 가능하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니체의 『비극의 탄생』 역시 어쩔 수 없이 서양적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